

특별기고



정기연 주필

# 6·25전쟁과 우리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자

히데요시가 죽음으로 끝나기까지 7년에 걸친 끔찍한 전쟁이었다.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인민군 12만의 남침으로 시작돼 1953년 7월 27일 12시 정오에 휴전으로 끝난 강산이 초토화된 3년 전쟁이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전후 세대들은 6·25전쟁을 잘 모르고 있으며,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햇볕정책에 의한 남북교류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 체제는 변하지 않고 전쟁에 의한 적화통일을 하려고 가공할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역사는 지나갔지만, 과거를 바로 알고 현실을 바르게 판단해서 과거와 같은 악순환을 없애려면 역사를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비참했던 6·25전쟁을 모르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전후 세대들은 세계에서 가장 인권탄압이 심하고 악독한 공산 독재 체제에서 살지 못하고 탈북하는 수많은 탈북자를 보면서 북한을 찬양하는 일부 북한 추종자들을 비판해야 하며,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이 남한에서 산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6·25 전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고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으며 가장 비참한 동족상잔의 전쟁이었다.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에 북한 공산당들이 탱크를 앞세우고 38선을 넘고 불법 남침해 무방비상태의 남한을 휩쓸고 쳐 내려와 경상남도 일부와 제주도만 남기고 점령했으나, 국군과 유엔군은 이를 물리쳤으며 우리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전쟁으로써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군이 14만 7천 39명 북한군이 52만 명, UN군이 3만 5천 737명, 중공군이 90만 명 이상의 인명 피해와 우리의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던 전쟁이다.

유엔은 창설 후 최초로 한국전쟁에 유엔군을 파병했으며, 국군과 함께 침략자 북한 공산군을 물리치고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이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을 함으로써 3년간의 전쟁은 휴전상태로 끝나게 됐다. 우리는 38선 아닌 휴전선으로 남북이 분단돼 6·25전쟁 72주년을 맞이했다.

6·25전쟁은 북한 공산당이 무력으로 적화통일을 하려는 계획적인 전쟁이었으며 전쟁 때문에 큰 피해가 있었지만,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며 전쟁으로는 통일할 수 없다는 것과 북한의 공산체제의 허구성을 남한사람들이 직접 알게 됐으며 북한의 온갖 위장선전에도 남한 주민이 속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됐다.

그동안 북한은 폐쇄된 공산체제를 유지하려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산 독재정치와 인권탄압

을 하면서 무력남침으로 통일을 이루려고 기회만 보고 있으며 휴전선에 남침 땅굴을 파고 바다에서는 어부들을 납치해갔으며 수많은 남파간첩을 보냈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이 있었다. 남한은 민주국가의 기반을 조성하고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개발과 경제건설에 힘써 오늘날 세계선진국 대열에 서게 됐으며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남북통일을 하려고 6·15공동선언에 따라 햇볕정책으로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서 북한의 개방화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이 분단된 국가로서 통일을 못하고 있으며 6·25전쟁의 비참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70세가 넘는 노령화가 돼 이산가족들의 상봉은 더욱 시급한 실정이며 전후 세대들은 비참했던 6·25전쟁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남북분단과 6·25전쟁의 비참한 역사를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우리 부모들과 교육을 맡은 교사들이 할 일이며 남북분단의 원인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식민지 통치를 하고 남긴 가장 큰 상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6·25전쟁 72주년을 맞이해 6·25전쟁과 우리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의 사명이며 해야 할 일이다.

독자기고

##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화재예방 강화

정삼태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를 예방하자.  
둘째, 공동주택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알아두자. 우리의 주택에는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있으며, 화재진압 장비로는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대피를 위한 하향식 피난사다리, 완강기,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등이 설치돼 있다. 소방시설의 역할과 어느 곳에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미리 숙지해 화재 발생시 침착하게 대응하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고층 공동주택이 있다. 화재에 비교적 취약한 건축 공동주택 입주민은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을 평소 익혀두어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동주택 입주민 역시 화재안전관리에 동참해야 한다.

공동주택 화재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크게 3가지로 살펴보자

첫째, 화재는 예방이 최선이다. 공동주택의 화재 발생 요인은 조리를 위한 주방에서의 화기취급 부주의, 여름철 급증하는 냉방용품 과열, 가전제품의 전기적 결함 문제와 과다사용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먼저 주방에서 불을 사용해 요리를 할 경우에는 절대 자리를 비우지 않으며, K급 소화기를 비치해 식용유 등 기름 화재를 대비한다.

또한 주변에 가연물을 두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콘센트는 플러그를 문어발식으로 꽂거나 사용하지 않는 기기에 전원을 꽂아두는 경우를 피하며 전력 소모가 많은 제품은 전용 콘센트를 사용해 화재

셋째, 화재 발생 시 무엇보다 대피가 우선이다. 종종 화재 발생 시 대피가 늦어져 안타까운 인명피해 사례가 발생한다. 대피하지 않은 상태에서 119에 신고, 무리한 화재진압, 중요한 물품을 챙기느라 늦은 대피 등의 행위는 절대 금지다. 대피 시에는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를 마시지 않으며,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재의 확산 속도와 연기를 늦추기 위해 꼭 현관문을 닫고 대피하길 바란다.

이에 보성소방서에서는 승강기, 세대현관문 등 공동주택 공용·개인시설 등에 피난시설 사용법 자석스티커를 제작해 부착했다. 지속적으로 입주민들의 안전의식 개선 및 화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6월 25일은 6·25 전쟁 72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6·25 전쟁을 남북통일 전쟁이라 하지만, 통일은 못 하고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대를 이은 3대째 공산 독재정치를 하고 있으며, 남한은 이승만-윤보선-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의 대통령이 선출돼 민주정치를 하며 평화적 남북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전쟁이 돌이 있으니 임진왜란과 6·25 전쟁이다.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나 1598년에

힘내라 광주시민, 힘내라 광주경제

마스크 외출자제 손씻기

← 2m →

# 생활속 거리두기, 코로나19를 이깁니다

간접재난지원금 대한민국정부 광주광역시

전남도민일보 www.jndomin.kr 62234 광주광역시 동영로 101번안길 19-2

회장 김경	대표전화 (062)227-0000	FAX (062)227-0084
사장 이문수	광고 (062)227-0000	구독료 월 10,000원
발행·편집인 전광선	편집국장 윤규진	등록번호 광주 가25(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남도민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2580@jndomin.kr 전화 (062) 227-0000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친환경쇼핑 남도장터

‘남도장터’는 전라남도 대표 농·특산물 쇼핑몰입니다.

전라남도 JeollaNamdo